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박치경



“너무 이쁜 걱정이 아닌가?”라고 되물 수도 있겠다. 개막한 지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여수 세계박람회(5.12~8.12)의 사후 활용 극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수엑스포는 개막 직후 기대했던 만큼의 관람객이 모이지 않아 관계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후활용을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흥행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 홍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여수엑스포 ‘성폐’에 대한 기준 논란이다. 1000만명 정도는 다녀가야 성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내외 관람객이 많아야 대규모 국제행사의 위상에 걸맞고 관계자나 지역주민들이 고무될 것이다. 출발은 부진하지만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기다리고 있어 세심하게 관람객 유치 방안을 다시 세운다면 만회도 가능

해 낙담은 아직 이르다. 일부 우려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여수엑스포는 성공적인 개막 자체로 이미 절반의 목적은 달성했고 본다. 엑스포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에서

## 여수, 8월 12일 이후엔?

뒤진 전남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데 있었다. 이 취지에서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60년대 수준이던 전남 동부권의 교통 인프리를 확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람회를 대비해 여수~순천 자동차전용 도로(38.8km·국도 17호선)가 시원하게 뚫려 만년 체증의 한 풀었다. 목포~광양 고속도로 완공됐고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까지 개통돼 이제 전남 동부권은 ‘사통팔달’이 가능케 됐다. 여기에 외국 손님맞이에도 손색없는 숙박업소까지 갖춰 동부권 전체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의 발길이 뚝 끊겨 엑스포 상징물인 ‘태양 탑’만이 쓸쓸하게 화려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993년 93일동안 열렸던 대전엑스포는 1400만명의 관객이 다녀갔지만 폐막 후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됐다.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1975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발돋움한 일본 오카나와는 여수의 본보기다.

미군 점령지에서 반환된 후 일본의 오지 가운데 한 곳이던 오카나와는 엑스포로 만

들어진 세계적인 ‘츄라우미’ 수족관 덕분에 이제는 ‘일본의 하와이’로 통한다. 일본인들도 생전에 꼭 방문을 원한다는 츄라우미 수족관의 연간 입장객은 300만 명에 이르고 하루 기념품 매출액만 8000만 원이 나눠 너끈하게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

## 사후활용 잘해야 진짜 성공

엑스포가 끝나면 대부분의 구조물이나 공간은 사라진다. 참가국 전시관을 비롯한 기관관 등은 철수하고 가장 ‘똑똑한’ 시설이나 상징물만 남게 된다. 파리의 에펠탑, 오카나와의 츄라우미 수족관 등이 대표적이다.

여수엑스포 개막 후 10일동안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여수에 남을 수족관과 현대자동차그룹관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3분의 1이 아쿠아리움을 찾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관도 북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객 대상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전시관이나 시설물은 애초 계획에 없더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치밀한 사후활용 계획과 실천을 놓을 수 없다. 행사 후 건물만 빙그려니 남고 인적이 끊긴다면 정말 실패한 엑스포로 낙인 찍힌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시설

## 친환경 박람회장에 발암물질 검출이라니

여수박람회 전시관 곳곳에서 대표적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품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3~4배 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해양로봇관 등지의 수치가 높은 데다 관람객 중 상당수가 두통·눈부가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조작위는 개막 10일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민족을 사고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6일간 국제관·자체관·해양로봇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18곳 중 14곳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품알데하이드가 기준치( $100\mu\text{g}/\text{m}^3$ )를 초과했다고 한다. 대서양관 471.63 $\mu\text{g}/\text{m}^3$ 을 비롯 인도양관 426.86 $\mu\text{g}/\text{m}^3$ , 광주시 전시관 앞 408.96 $\mu\text{g}/\text{m}^3$  등을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품알데하이드가 다량 검출된 것은 조작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시관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나 개막 무렵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품알데하이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순 없지만 지난 11일 3차 예행연습 때 박람회장 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604명 중 107명이 두통을 호소했고, 이후 복통·감기와 더불어 두통 환자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고 볼 수 있다.

본보 취재기자는 문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조작위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조작위는 겸사 당일 일부 공간에서 공사가 한창이어서 결과가 높게 나왔을 뿐이며 일축했다.

개막 후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책 없이 방지해 왔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엑스포는 지구환경 보호를 주제로 펼쳐지는 친환경 박람회다. 조작위가 이를 외면한 채 공기질 측정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쉬쉬하면서 관람객을 끌어 모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관람객 유치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바로 관람객을 위한 환경 개선이다.

## 정부, 영광원전 ‘가상사고’ 정확히 인식해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나 지난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55만 명, 피해액은 45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고리원전 등 일부 원전은 수명이 한계점에 있다. 원전 내 안전사고가 적지 않았던 것도 무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실험 결과를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진 피해지역인 영광은 7800여명, 인구 밀집지역인 광주는 2만500여명의 사망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폭발 1249만여 명, 급성 사망 1만여 명, 암으로 인한 사망이 5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피해도 최대 45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번 모의실험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고 조사방식의 객관성 문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 하나 안전성을 자부했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 사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고리원전 등 일부 원전은 수명이 한계점에 있다. 원전 내 안전사고가 적지 않았던 것도 무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실험 결과를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진과 쓰나미, 전력 단절 및 화재 등 중대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원전 운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난대책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을 올리는 것조차 금지했다.

범죄는 아니지만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도 모방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독일의 문호 고테가 1774년 출간한 서학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한 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뜻한다.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이 소설은, 주인공처럼 권총으로 자살하는 젊은이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발간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은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들이 불rophia는 보도가 나왔다. 범인들은 인질강도가 등장하는 영화를 수차례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한다. 영화를 본 뒤 ‘모방범죄’인데, 방화범에 대한 언급을 금지했던 에페소스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 같은 행동의 모방효과가 염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방화자의 이름을 입

## 광주일보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면 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5

기획 사 암 국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 기고

## 정수봉



## 기업도 이제는 100세 시대를 열어야

도 하지만 사는 동안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같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대체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한 결과, 또 좋아하는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은 이제 80세(남자 77, 여자 84)에 이르렀고 2040년에는 90세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금세기 내에 100세 장수시대에 돌입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같이 사람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체계적인 꾸준한 건강관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사람과 흡사한 경로를 거치는 기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람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를 거쳐 생을 마감하듯이 기업도 창업 후 보육기, 성장기, 쇠퇴기를 거쳐 소멸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업의 평균 수명은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라고 말한다. 기업이 사람과 비슷한 삶의 경로를 겪지만 기업의 수명은 사람 수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먼저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 외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버텨줄 체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물론 과도한 술, 담배는 해롭지만 과도한 운동도 해로울 수 있다.

둘째로 스트레스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장 힘든 스트레스라도 언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 상황과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동아병원 원장〉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직장인 주부 마음껏 일하게 공립 보육시설 확충해야

간에 애근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용지침을 쓴 건데, 그러다 보니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서로 같은 시간에 나가거나 들어와 본적이 거의 없다.

이게 어디 사는 일인가 싶어 가끔 아주 큰 회의가 밀려들곤 한다.

구청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밤 10시까지 아이를 봄준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주부 공무원들은 정말 맘 놓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들었다. 너무나 부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설 보육시설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이를 봄주는 데가 거의 없고, 또한 돌봐준다 해도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은 많이 장려하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한 그 뒷배경에는 무관심한 사회다.

이를 여성 개인,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출산과 양육은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몰라서 그렇다.

정부가 밀리는 보육 시설을 늘린다고 말하지만 직장인 주부들이 느끼는 건 별반 다른 힘이 없다. 정말 직장인 주부들은 슈퍼우먼이 아닌 보통 엄마로 살고 싶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남편과 나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직장 다니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애들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는 게 대단하다”는 말이다.

이게 물론 나쁜 뜻은 아니고, 대견하다는 의미인 건 알지만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난다. 주부는 슈퍼우먼이 아니고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느라 그 고충이 장난이 아님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장을 포기하기